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1. 9. 30 | 통권 제6호(2011-06) |

최근 청년 니트(NEET)의 현황과 추이*

[요약]

- 청년 니트 가운데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구직 청년 니트의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년 2월 들어 사상 최고인 128만 명을 기록하고 있어 청년 자신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도 어둡게 하고 있음.
- 청년 비구직 니트 가운데 ‘그냥 쉬고 있다’는 사람이 무려 35만 명(35%)에 이르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음.
- 청년 비구직 니트 가운데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도 31만 명(31%)에 이르는데, 이러한 취업준비 청년의 증가가 최근 7년 동안 청년 비구직 니트 증가의 중요한 이유임.
-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 니트의 문제가 차츰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한편, 청년이라 하더라도 이들을 뭉뚱그려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부 집단들로 구분하고, 특히 취약집단들을 식별하여 각각에 적합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함.

* 본 연구는 「최근 청년 니트(NEET)의 현황과 추이」(남재량, 2011)의 일부를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 본고는 청년 가운데에서도 특히 청년 취약계층, 구체적으로 청년 니트에 초점을 맞춤.

- 청년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 지 오래이나 많은 연구들은 청년 전체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취급하여 주로 청년 전체에 대해 분석하였음.
- 청년 가운데에서도 취업이나 노동시장 정착, 인적자본 축적 등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계층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식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취약계층 가운데 대표적인 경우가 청년 니트(NEET)¹⁾임.

■ 청년 니트의 현황 및 추이

- 청년 니트는 2003년 1,148천 명에서 2005년 1,270천 명까지 증가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되어온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2005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7년 1,233천 명으로 줄어들었음. 그러나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10년에는 1,344천 명에 달함(표 1).
- 이에 따라 15~34세 인구 가운데 청년 니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7.8%에서 2010년 9.9%로 증가하였음.

■ 청년 비구직 니트의 현황 및 추이

- 청년 니트 가운데 구직활동을 하는 ‘구

직 니트’는 대부분 실업자에 속하며 이들에 대한 분석은 청년실업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구직 니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

- 비구직 니트는 구직 니트의 경우와 달리 2003년 751천 명에서 단 한 해도 예외 없이 증가하여 2010년에 이르면 996천 명에 달하여 7년 만에 245천 명이 증가하였음(표 2).

- 이는 연평균 35천 명 증가한 것에 해당됨.
-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비구직 니트의 급속한 증가가 1990년대에 필적할 정도로 급격하지는 않으나, 2000년대 들어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함.

- 이에 따라 2010년에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하는 996천 명의 청년이 일을 하거나 일할 준비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고 있음.

-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비구직 니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들이 15~34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5.1%에서 2010년 7.3%로 증가하였음.

■ 청년 비구직 니트의 월별 현황 및 추이

- 비구직 니트의 규모를 월별로 살펴보

1)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첫 글자를 딴 것이며, 문자 그대로 교육, 훈련, 일 가운데 어느 것도 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임. 구체적으로 니트란 “지난 1주간으로 볼 때 ① 정규 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하고 있지 않고, ② 일하고 있지도 않으며(즉, 취업자가 아니며), ③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고 있지도 않고, ④ 배우자가 없는(즉, 독신인) ⑤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으로 정의됨.

〈표 1〉 니트 현황 : 연도별

(단위: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5~34세 인구	14,759 (100.0)	14,504 (100.0)	14,162 (100.0)	13,937 (100.0)	13,787 (100.0)	13,696 (100.0)	13,618 (100.0)	13,545 (100.0)
니트	1,148 (7.8)	1,214 (8.4)	1,270 (9.0)	1,267 (9.1)	1,233 (8.9)	1,249 (9.1)	1,326 (9.7)	1,344 (9.9)
구직 니트	397 (2.7)	407 (2.8)	397 (2.8)	386 (2.8)	343 (2.5)	331 (2.4)	353 (2.6)	349 (2.6)
비구직 니트	751 (5.1)	806 (5.6)	873 (6.2)	881 (6.3)	891 (6.5)	918 (6.7)	973 (7.1)	996 (7.3)
니트 아님	13,611 (92.2)	13,290 (91.6)	12,893 (91.0)	12,671 (90.9)	12,553 (91.1)	12,447 (90.9)	12,293 (90.3)	12,200 (90.1)

면, 2011년 1월의 비구직 니트는 1,032천 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1개월 전인 2010년 12월의 975천 명에 비해 57천 명 증가한 것이며, 전년 동기인 2010년 1월에 비해 29천 명 증가한 것임(표 2).

- 2011년 2월의 비구직 니트는 128.4만 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년동기의 121.6만 명에 비해 6.8만 명 증가하였음.
- 2011년 1월의 비구직 니트 103.2만 명과 비교하여 보면, 1개월 만에 25.2만 명이나 증가하였음.
- 비구직 니트의 15~34세 인구에 대한 비율을 보더라도 2011년 2월에 9.5%를 기록하고 있어 10%에 육박하고 있음.
- 비구직 청년 니트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상징성이 클 뿐만 아니라, 2011년 2월 들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청년 니트의

문제가 현재 진행형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결과임.

■ 청년 비구직 니트의 성별 특성

- 니트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비구직 니트는 강한 여성화 추세를 보임.
- 2003년 32.4%이던 여성 비구직 니트의 비율은 2010년에 37.6%로 상승하였음(표 3).
- 기간을 확장하여 1995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당시 여성 비구직 니트의 비중은 26.9%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 2010년에 37.6%에 이른 것임.
- 15년 동안 여성 비구직 니트의 비중이 무려 10.7%포인트나 상승한 것은 매우 급격한 변화이며, 여성 비구직 니트의 수도 1995년 73천 명에서 2010년 374천 명으로 301천 명이나 증가하였음.

■ 청년 비구직 니트의 연령집단별 특성

- 청년 비구직 니트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표 2〉 비구직 니트의 월별 현황

(단위: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월	798	826	908	948	939	901	990	1,003	1,032
	(47)	(20)	(35)	(67)	(49)	(-17)	(17)	(7)	
2월	914	999	1,134	1,080	1,055	1,071	1,149	1,216	1,284
	(163)	(193)	(261)	(200)	(165)	(153)	(176)	(221)	
3월	721	778	852	859	875	943	978	1,022	
	(-30)	(-28)	(-20)	(-22)	(-16)	(25)	(5)	(26)	
4월	694	763	814	833	836	885	897	967	
	(-57)	(-43)	(-58)	(-48)	(-55)	(-33)	(-76)	(-28)	
5월	699	761	811	851	851	873	898	918	
	(-52)	(-45)	(-62)	(-29)	(-40)	(-45)	(-75)	(-77)	
6월	721	761	826	838	845	868	880	951	
	(-30)	(-45)	(-46)	(-43)	(-46)	(-50)	(-92)	(-44)	
7월	764	810	845	872	906	888	949	958	
	(13)	(4)	(-27)	(-9)	(15)	(-30)	(-24)	(-38)	
8월	796	885	948	924	961	949	1,012	1,033	
	(44)	(78)	(76)	(43)	(70)	(31)	(39)	(37)	
9월	734	781	866	830	864	898	960	978	
	(-17)	(-25)	(-7)	(-50)	(-27)	(-20)	(-13)	(-17)	
10월	703	748	810	838	828	852	961	953	
	(-48)	(-59)	(-63)	(-43)	(-63)	(-66)	(-11)	(-42)	
11월	721	765	789	837	829	887	957	937	
	(-30)	(-41)	(-84)	(-44)	(-62)	(-31)	(-16)	(-59)	
12월	749	798	868	872	844	926	980	975	
	(-2)	(-9)	(-5)	(-9)	(-47)	(8)	(7)	(-20)	
연평균	751	806	873	881	891	918	973	996	

주:()안의 값은 연평균으로부터의 편차임.

- 살펴보면, 청년 인구의 연령 구성에 비해 고연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
-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25~29세 비구직 니트의 비중 증가임(표 4).
- 이 비중은 2003년 26.5%에서 2010년 35.3%로 8.8%포인트 상승한 반면, 동일기간 동안 15~34세 가운데 25~29

- 세 인구의 비중은 26.1%에서 27.5%로 1.4%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침(표 5).
- 30~34세 비구직 니트의 비중도 12.5%에서 15.0%로 상승하였음.
- 반면 청년 비구직 니트 가운데 대부분의 기간 동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20~24세의 비중은 2003년

〈표 3〉 성별 비구직 니트 현황

(단위: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남 성	508	523	544	540	554	573	614	622
	(67.6)	(64.8)	(62.3)	(61.3)	(62.2)	(62.4)	(63.1)	(62.4)
여 성	244	284	329	341	337	345	359	374
	(32.4)	(35.2)	(37.7)	(38.7)	(37.8)	(37.6)	(36.9)	(37.6)
전 체	751	806	873	881	891	918	973	99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 연령별 비구직 니트 현황

(단위: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5~19세	123	109	122	104	103	110	115	130
	(16.3)	(13.5)	(13.9)	(11.8)	(11.6)	(11.9)	(11.9)	(13.0)
20~24세	335	359	383	361	325	318	339	365
	(44.7)	(44.5)	(43.9)	(41.0)	(36.5)	(34.6)	(34.9)	(36.6)
25~29세	199	226	243	291	320	337	360	352
	(26.5)	(28.1)	(27.9)	(33.1)	(36.0)	(36.7)	(37.0)	(35.3)
30~34세	94	112	125	125	142	154	158	150
	(12.5)	(13.9)	(14.3)	(14.2)	(15.9)	(16.7)	(16.2)	(15.0)
전 체	751	806	873	881	891	918	973	99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4.7%에서 2010년 36.6%로 8.1%포인트 하락하였음.

- 이는 15~34세 가운데 20~24세 인구 구성비가 동일기간 동안 22.7%에서 19.5%로 3.2%포인트 하락한 것에 비하면 급격한 하락임.
- 15~19세 비구직 니트의 비중은 이 집단의 인구 구성비가 21.4%에서 24.6%로 3.2%포인트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기간 동안 16.3%에서 13.0%로

3.3%포인트 하락하였음.

- 이러한 비구직 니트의 고연령화 현상은 분석기간을 1990년대로 확장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나타남.
- 즉, 비구직 니트 가운데 15~19세 비중은 1995년 22.9%에서 2010년 13.0%로, 20~24세 비중은 41.6%에서 36.6%로 하락하였으나, 25~29세 비중은 동일기간 동안 23.8%에서 35.3%로 상승하였으며, 30~34세 비중도 11.8%에서

〈표 5〉 15~34세의 연령별 인구 구성

(단위: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5~19세	3,165	3,070	3,046	3,103	3,203	3,238	3,286	3,338
	(21.4)	(21.2)	(21.5)	(22.3)	(23.2)	(23.6)	(24.1)	(24.6)
20~24세	3,349	3,278	3,067	2,880	2,734	2,681	2,649	2,644
	(22.7)	(22.6)	(21.7)	(20.7)	(19.8)	(19.6)	(19.5)	(19.5)
25~29세	3,854	3,793	3,807	3,861	3,918	3,902	3,843	3,719
	(26.1)	(26.1)	(26.9)	(27.7)	(28.4)	(28.5)	(28.2)	(27.5)
30~34세	4,391	4,363	4,243	4,095	3,932	3,875	3,840	3,844
	(29.8)	(30.1)	(30.0)	(29.4)	(28.5)	(28.3)	(28.2)	(28.4)
전 체	14,759	14,504	14,162	13,937	13,787	13,696	13,618	13,54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0%로 상승하였음.

■ 청년 비구직 니트의 학력집단별 특성

- 청년 비구직 니트의 학력 구성 및 그 변화를 보면, 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 증가와 고졸자 비중 감소라는 특징이 나타남.
- 즉, 비구직 니트 가운데 고졸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인구 구성비에 비해서도 크게 높으나 시간에 걸쳐 하락하는 반면, 대졸 이상자 비중은 인구 구성비보다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2010년 비구직 니트 가운데 고졸자의 비중은 56.0%로서 가장 높으며(표 6), 15~34세 인구 가운데 고졸자의 비중인 40.1%보다도 크게 높음(표 7).
- 고졸 비구직 니트의 비중은 2003년 63.6%에서 2010년 56.0%로 하락하고 있음.
- 반면 비구직 니트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2010년 25.2%로서

2003년의 16.3%에 비해 8.9%포인트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일기간 15~34세 인구 가운데 대졸 이상자 비중 상승분 4.1%포인트를 크게 능가함.

■ 청년 비구직 니트의 주된 활동상태

- 15~34세라는 젊은 시기에 학교나 학원 또는 교육훈련기관들에 다니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육아나 가사를 하는 것도 아니며, 일을 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일자리를 알아보지도 않고 있다면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
-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비구직 니트의 주된 활동상태를 살펴봄.
- 비구직 니트의 주된 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쉬었음'으로 2010년의 경우 34.9%로서 348천 명이 여기에 속함(표 8).
- 가장 활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적극적인이어야 할 청년 가운데 무려 35만 명

〈표 6〉 학력별 비구직 니트 현황

(단위: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중졸 이하	73	76	78	71	70	69	77	63
	(9.7)	(9.4)	(8.9)	(8.1)	(7.9)	(7.5)	(7.9)	(6.3)
고 졸	478	481	508	491	473	466	526	557
	(63.6)	(59.6)	(58.2)	(55.7)	(53.1)	(50.8)	(54.0)	(56.0)
전문대졸	78	102	118	122	118	147	144	125
	(10.4)	(12.6)	(13.6)	(13.8)	(13.2)	(16.0)	(14.8)	(12.6)
대졸 이상	122	148	169	197	230	236	227	251
	(16.3)	(18.3)	(19.3)	(22.4)	(25.8)	(25.7)	(23.3)	(25.2)
전 체	751	806	873	881	891	918	973	99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7〉 15~34세의 학력별 인구 구성

(단위: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중졸 이하	2,676	2,618	2,533	2,636	2,705	2,760	2,801	2,775
	(18.1)	(18.1)	(17.9)	(18.9)	(19.6)	(20.1)	(20.6)	(20.5)
고 졸	7,436	7,025	6,684	6,282	5,985	5,725	5,526	5,431
	(50.4)	(48.4)	(47.2)	(45.1)	(43.4)	(41.8)	(40.6)	(40.1)
전문대졸	1,902	2,058	2,124	2,104	2,183	2,254	2,281	2,268
	(12.9)	(14.2)	(15.0)	(15.1)	(15.8)	(16.5)	(16.7)	(16.7)
대졸 이상	2,744	2,802	2,822	2,916	2,913	2,957	3,011	3,070
	(18.6)	(19.3)	(19.9)	(20.9)	(21.1)	(21.6)	(22.1)	(22.7)
전 체	14,759	14,504	14,162	13,937	13,787	13,696	13,618	13,54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량이 특별한 일 없이 놀고 있는 것은 저출산 문제에 더하여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

-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비구직 니트는 그 규모도 2003년 261천 명에서 2010년 348천 명으로 증가하였음.
- ‘쉬었음’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취업준비’로, 이 비중은 2010

년에 31.1%로 높은데, 이는 2003년 16.2%에서 매우 급격히 상승한 결과임.

- 이에 따라 동일기간 ‘취업준비’ 비구직 니트의 수도 122천 명에서 310천 명으로 188천 명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일기간 비구직 니트 전체 규모 증가분 245천 명의 76.7%에 해당함.
- 즉, 활동상태로 볼 때 비구직 니트 증

〈표 8〉 비구직 니트의 주된 활동상태

(단위: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취업준비	122	157	201	262	281	319	301	310
	(16.2)	(19.5)	(23.1)	(29.7)	(31.6)	(34.7)	(30.9)	(31.1)
진학준비	115	111	123	124	137	124	145	179
	(15.3)	(13.7)	(14.1)	(14.1)	(15.3)	(13.5)	(14.9)	(18.0)
심신장애	63	68	63	59	52	61	68	51
	(8.4)	(8.4)	(7.2)	(6.7)	(5.9)	(6.7)	(7.0)	(5.1)
군입대 대기	90	63	66	55	50	43	43	55
	(12.0)	(7.8)	(7.6)	(6.2)	(5.6)	(4.7)	(4.4)	(5.5)
결혼준비	11	8	14	11	8	12	7	8
	(1.5)	(1.0)	(1.6)	(1.3)	(0.9)	(1.3)	(0.7)	(0.8)
쉬었음	261	310	329	305	309	316	360	348
	(34.7)	(38.5)	(37.7)	(34.6)	(34.6)	(34.4)	(37.0)	(34.9)
기 타	89	89	76	66	54	45	50	47
	(11.9)	(11.0)	(8.7)	(7.5)	(6.1)	(4.9)	(5.1)	(4.7)
전 체	752	806	873	881	891	919	973	99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표에 제시된 '기타'는 원래 조사표상의 응답항목인 '기타'에다 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주된 활동상태들을 모두 포함한 것임.

가의 주된 원인은 취업준비자의 증가라 할 수 있음.

- 물론 '쉬었다'고 응답한 비구직 니트도 87천 명 증가하여 '취업준비' 다음으로 비구직 니트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진학준비'의 경우도 동일기간 동안 64천 명 증가하였음.

■ 정책 시사점

- 본고는 청년 가운데에서도 취약청년 집단으로 볼 수 있는 청년 니트에 대한 분

석임.

-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이들을 하나로 묶뚱그려 동질적으로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을 다양한 집단들, 특히 취약집단들로 식별해내고 각 집단들에 알맞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임.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jrnam@kli.re.kr / Tel. 02-3775-5557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김승택 / 편집인: 장흥근 / 편집·교정: 정 철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